

기억의 정치와 은폐된 목소리의 재현

-김성동 후기 소설을 중심으로-

이하은(충남대)

해방과 더불어 한국사회는 극심한 혼란기에 접어든다. 급작스러운 해방으로 민족의 염원이었던 민족독립국가를 수립할 기회가 주어진 한편 이 혁명적 조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국가 수립과 연결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 시기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미소군대의 진주와 함께 한국 사회에는 수용과 배제라는 이중적인 정치 양상이 병행되었다. 한국전쟁과 더불어 분단된 국가체제 하에서 수용과 배제라는 논리는 남한사회를 구조화하는 권력의 주요 기제가 되었다. 단독정부 수립 후 수십 년간 철저히 펼쳐온 반공정책은 철저히 자신의 뿌리를 지우려는 이들을 수용하는 동시에 배제하는 방식이 되었다.

김윤식은 해방 이후의 한국문학에는 “아버가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는 강박관념이 작용했다고 말한 바 있다. 레드 프레임으로 규정된 이들은 문학 속에 자신의 내력을 은연중에 드러내기도 하고, 혹은 자신의 내력을 철저히 숨기려는 방식을 보이기도 한다. 김성동은 아버지와 더불어 어머니 등 가족의 이력으로 ‘진빨’로 규정된 작가이다. 김성동이 자신의 소설을 “문학성을 가미한 다큐”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 그의 소설에는 가족의 연원이 깊게 자리한다. 김성동은 「만다라」 이후에 집필한 「엄마와 개구리」부터 가족의 서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1983년부터 「폭적」을 연재하며 아버지의 삶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려 했으나, 2회만에 강제로 연재가 중단되게 된다. 이후 『민들레꽃반지』에 담긴 세 편의 소설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행했던 좌익의 삶을 구체적으로 서사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김성동 소설 연구는 대체로 「만다라」에 집중되어 있고, 이에 따라 김성동의 소설세계는 구도적이라는 평을 받았다. 이후 김성동의 소설을 이해하기 위해 작가의 자전적인 동기나 아버지와 관련된성 안에서 소설을 배치해야 한다는 연구들도 등장했다. 특히 골령골 학살사건이 드러나며 이와 관련하여 김성동 소설을 바라보는 시선도 등장했다. 선행연구들이 조명했듯이 김성동의 아버지는 김성동 문학의 출발점에 놓여 있다. 또한, 김성동의 어머니 역시 김성동 문학을 이해하는 데에 주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데 김성동은 자신이 겪었던 성장기의 폭력을 소설로 승화할 때, 부모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에 주력한다는 점이 독특하다. ‘제망부가’, ‘제망모가’와 같은 표지나 한국사에서 잊혀졌어야 했던 삶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점에서 김성동의 문학적 화도를 부모에 대한 추도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그렇지만 김성동의 문학적 노선을 개인사에 국한하여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김성동은 ‘아버지와 같은 꿈을 꾸었던’ 망각된 역사적 주체들과 그들이 염원했던 ‘새 세상’을 복원함으로써 개인의 내력을 역사로 확장하기 때문이다. 김성동은 소설로써 해방 직후의 좌익들의 삶을 재구성하면서 한국사회에서 망각되고 왜곡되어 왔던 역사의 한축을 가시화한다.

김성동은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은폐되고 망각되어 가는 역사를 서사하지 않는다. 초기 소설에는 ‘영복’이라는 유년기 인물을 통해 어머니와 마을 사람 등의 삶을 조명하지만, 후기 소설에는 어머니나 아버지 자체가 중심인물이 된다는 독특함을 보인다. ‘제망부가’나 ‘제망매가’라는 추모사의 서술자가 자식으로 나오는 데에 반해 후술되는 서사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중심인물로 나온다. 이때, 추모사를 쓴 서술자가 내부 이야기를 서술하는 자의 위치에 있지 않다. 어머니와 아버지, 아들 세 사람의 고통을 한데 묶는 것은 해방기 부모의 좌익 활동이다. 그러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정신이 온전치 않은 어머니와 함께 산 아들은 이들이 겪은 고통을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이 극복할 수 없는 간극을 지우기 위해 선택

된 서술자는 아들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초과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을 서술한다. 이로써 역사와 허구 그 사이에 위치하는 서사가 형성된다.

김성동은 허구를 통해 의미를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망각되었던 이들의 삶을 복원한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꽃다발도 무덤도 없이’ ‘조선반도 건공중을 떠돌고 계신 어르신’¹⁾들의 삶을 복원할 때, 김성동의 소설은 「만다라」나 「엄마와 개구리」 등과 같은 정연된 미적 형식을 취하지 못한다. 조서의 내용, 이념적 발화가 전면화된 대화, 사관의 역사서술이나 평과 같은 형식들이 한데 담기면서 치밀하게 유의미 전체를 만드는 구조를 구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들레꽃반지」, 「멧새 한 마리」, 「고추잠자리」를 넘어서 『현대사 아리랑』, 『꽃다발도 무덤도 없는 혁명가들』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을 볼 때, 김성동의 후기 작업을 과연 문학 안에 포괄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까지 한다.

역사부하성이 현저한 이야기 작업일수록 다큐멘터리나 보고 형식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이 때 이야기 행위는 문맥을 공동화하고 이야기로 전승하는 행동에 해당하기 때문이다.²⁾ 그러므로 김성동의 후기 작업에는 은폐된 역사를 복원한다는 것 이상의 규범적 의미가 포함된다. 즉 은폐되고 망각되었던 과거를 오늘날의 체계로 끌어오으로써 현재와의 새로운 규범적 관계를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마치 신재호가 국가 혼란기에 강감찬이나 최영, 단군 등 당대 역사에서 감춰져 있던 위인들을 찾았듯이, 김성동 역시 ‘연개소문’에 대한 사관 서술에 빗대어 사적이 사라져 버린 좌익 인사들의 발자취를 생동감 있게 재현한다. 이러한 새로운 의미 체계 내에서 미국이나 국가권력에 의해 ‘진빨’로 분류되고 낙인 찍혔던 해방기 좌익들은 국가 혼란기에 새 세상을 염원하고 이 이상을 실천하고자 한 혁명적 인물, 외부에 의해 이상이 좌절되고 만 낭만적인 청년들로 되살아난다.

작가 개인사적으로 ‘진빨’은 가족을 와해시킨 상징적 낙인이고, 골령골에서의 죽음 역시 작가의 삶을 수식하는 꼬리표와 같다. 그렇지만 김성동의 후기 소설들은 ‘진빨’이라는 이유로 삶의 가능성들이 차단되었던 자신의 아픔을 서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상을 꿈꾸던 해방기의 좌익 혁명가들의 좌절과 고통을 증언하지는 않는다. 즉 상처를 정체성으로 바꿈으로서 삶을 역사에서 고립시키거나, 상처를 물신화하는 일을 거부한다.³⁾ 해방기의 이상을 꿈꾸던 이들을 역사의 피해자나 패배자, 또는 그러한 사람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의 후기 소설은 해방기라는 역사적 공간 내에 치열하고도 급박히 움직였던 이들을 위치시킨다.

유년기의 아들이든지 성인이 된 아들이든지 그 누구도 아버지나 어머니의 위상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없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 사료나 문헌 등에 의존하다 보니, 김성동 후기 소설은 다소 난해하고 난삽해 보이는 면이 있다. 후기 소설이 지니는 형식적 미흡함은 고통을 겪은 몸들의 이야기가 단일한 것으로 수렴될 수 없다는 것, 전달 불가능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삶을 자유간접화법으로 전달하는 구성이 융합된 형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은폐되고 망각되었던 삶들을 복원함으로써 빨갱이, 반국사세력으로 평가되었던 이들에게 또 다른 역사적 평가를 들려주기 위한 의지적 표현에 가깝다.

김성동의 소설이 보인 궤적을 살펴볼 때, 김성동은 초기부터 국가권력이 통제하고자 한 삶을 가시화하고자 했다. 「풍적」의 연재 중단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가 후반부에 집중했던 작업들이 이를 반증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소설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의 동료

1) 김성동, 『현대사 아리랑』, 녹색평론사, 2010, 3쪽.

2) 노에 게이치, 김영주 역, 『이야기의 철학』,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9, 104쪽.

3) 사라 아메드, 시우 옮김, 『감정의 문화정치』, 오월의 봄, 2024, 82쪽.

들이 행했던 행동, 사상들이 구체화되고 더욱 전면에 제시되게 된다. 즉 김성동 후기 소설은 해방기 이후 국가 체제 내에 하나로 통일될 수 없던 잡음들에 목소리를 부여함으로써 공동체의 표면을 달리 살아갔던 이들의 삶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김성동 후기 소설이 역사에 저항하며 새롭게 기억의 정치를 펼치는 방식이다.